

【特集】

鳥取大学地域学部設置記念

鳥取県 中華人民共和国吉林省・大韓民国江原道交流10周年記念

北東アジア地域学国際会議

期日：2004年7月27日 7月28日

会場：鳥取大学地域学部

盧武鉉政權의 東北亞 經濟中心國家建設推進과

環東海經濟圈 : Peace Sea Vision 構想

李鉉勳、具正謨 (韓國、江原大學經濟貿易學部)

I. 머리말

한 때 세계 최고의 냉전지역이었던 동북아시아는 세계적인 지역주의 경향에 따라 최근 들어 경제 협력과 교류가 점차 심화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2003년 말부터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정부간 협상을 진행 중이며, 아울러 한국-일본-중국 3국의 FTA 체결을 위한 공동연구도 진행중이다.

아울러 2003년 출범한 한국의 노무현 정부는 주요 국정과제의 하나로 소위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인천, 광양, 부산 등을 경제자유지역으로 지정하여 동북아 금융, 물류, 산업의 중심지로 건설함으로써 한국경제의 성장동력을 마련하고 한국을 동북아 중심지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동북아에서는 이와 같은 정부적 차원의 교류 협력이 구체화되기 이전인 1990년대 초부터 환동해권과 환황해권에 각각 속한 지방정부들 차원의 교류 협력이 진 진행되어 왔다. 본 고에서는 첫째, 동북아시아에서의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교류와 협력 현황을 살펴본다. 두번째로 한국의 현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 구상의 개요를 살펴보고 문제점을 지적한다. 세번째로 강원도가 추진해온 환동해교류 협력의 현황을 소개하고, 마지막으로 환동해 연안 지역간 협력의 활성화방안 나아가 환동해경제권 형성을 위한 제도적 추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환동해권 국가들의 모든 지방정부들이 참여하는 「피스 씨 비전(Peace Sea Vision)」의 추진 방향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II. 동북아시아의 역내 협력 현황

유럽연합(EU)의 출범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확대 움직임으로 확산되고 있는 세계의 지역주의 경향과 1997년에 발생한 동아시아 외환위기를 계기로 아시아 지역에서도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예를 들어 2002년 말까지 FTA를 완성한 아세안(ASEAN)은 중국, 일본, 한국과의 FTA를 추진중이다. 또한 아세안의 회원국들 중 싱가포르, 태국 등은 독자적으로 한국, 일본 등 아시아권 국가뿐만 아니라 미국, 멕시코, 칠레 등 많은 나라들과 FTA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한-일간에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양국 정부 차원의 공식협상을 2003년 중 착수하고, 2005년까지 마무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중국-일본 3국의 FTA 체결을 위한 공동연구도 진행 중이다. 한국은 궁극적으로 한-중-일 3국을 포함하는 동북아시아 자유무역협정

(NEAFTA)을 체결한 후 ASEAN 국가까지 포함하는 동아시아 자유무역협정(EAFTA)를 추진한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 아울러 중국과 일본도 각각 ASEAN과의 FTA 협상을 진행 중인 상태이다.

한편, 동북아시아에서는 1990년대 초부터 환동해권과 환황해권에 속한 국가들의 지방정부간 협력이 비교적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표 1>은 이 같은 하위지역협력의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이들 협의체의 성격이 현 단계에서는 역내 지방간에 공동개발 및 공동투자 등 제도적인 경제협력 단계로까지는 이어지지 않고 있으나 협의체를 통한 교류가 확대됨에 따라 중 - 장기적으로는 제도적인 협력단계로까지도 발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례도 존재한다.

< 표 1 > 동북아의 하위지역협력의 사례

구 분	발족연도	참 가 범 위
동북아자치단체협의회	1993.10	한국 9 개도, 일본 서해연안 13 개 道府縣, 중국 12 개 성, 러시아 극동지역 11 개 자치체
환동해권확대거점도시회의	1994.10	속초를 비롯한 환동해지역의 10 개 기초자치단체
환동해권지방정부 지사 - 성장회의	1994.11	한국 강원도, 일본 돗토리현, 중국 길림성, 러시아 연해주, 몽골 중앙도
환황해권도시회의 1	1993	한국 인천 및부산, 일본 키타큐슈 및시모노세키, 중국 大連 및靑道
환황해권광역자치단체협의체	추진중	-
동북아기계산업벨트협의체	추진중	한국 경상남도, 일본 후쿠오카현 등 4 개 지자체, 중국 산둥성 등 4 개 지자체, 러시아 연해주 ? 하바로프스크주

주: 1) 동아시아 6 도시경제회의(1991)를 시작으로 하여, 1996년의 제 2 차 회의부터는 중국 天津과 煙臺가 참가하여 8 도시회의로 확대됨.

III. 노무현 정부의 「동북아경제중심국가」 건설 계획

노무현 신정부의 국정 과제인 「동북아 경제중심국가」건설 구상은 2002년 7월 29일에 발표된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건설 계획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 구상은 한국이 동북아에서의 지정학적 위치를 활용, 공항과 항만 등 물류시설의 확충을 통해 동북아의 물류중심지로 육성할 필요성이 있으며, 외국인에 친화적인 비즈니스와 생활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세계 유수기업 및 금융의 동북아거점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여 경제의 활로를 개척해 나간다는 것이다.

특히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계획의 핵심은 인천, 광양, 부산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이 지역에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여 국제 비즈니스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은 한국 경제의 활로를 찾을 수 있는 시의 적절한 과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추진중인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 계획은 상당히 중요한 측면을 간과하고 있다. 현재의 구상은 동북아시아의 한 축인 환황해권을 대상만으로 한 계획이다. 즉, 현재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인천, 광양, 부산은 환동해권이 아닌 환황해권의 교류 중심지이다. 그러나 이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있다.

첫째, 동북아시아의 또다른 축인 환동해권을 제외시킴으로써 잠재력이 매우 큰 환동해권 연안지역인 북한의 동북 3성, 일본의 일본해(한국의 동해) 연안지역 14개 道府縣, 중국의 동북 3성 및 러시아 극동지역과의 경제협력이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밖에 없다.

둘째, 대내적으로 핵심개발지역(수도권, 서남권 및 동남권)과의 환동해권 연안지역 등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계획에서 소외되거나 상대적으로 가볍게 다루지고 있는 지역간 격차가 더욱 확대될 수 있다.

따라서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 계획을 경쟁력있고 균형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환황해권 뿐만 아니라 환동해권을 포용하는 총체적인 계획이 추진되어야 한다.

IV. 환동해경제권 구상과 대응전략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그 동안 환동해권에서의 교류협력은 여러 가지 장애요인이 존재함에 따라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정부차원에서 추진되어 왔다. 특히 환동해권에서 강원도가 추진해 온 지방정부간 교류협력은 그 동안 한국에서 모범적인 사례로 인정되어 왔다.

동북아시아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강원도는 1994년 7월에 환동해권 교류와 협력을 위한 구상을 발표하였다. 이 구상의 단계는 첫째, 환동해권 지방정부간의 교류확대를 추진하고, 둘째, 지방정부간의 경제적인 협의기구 설치 및 제도화를 추진하고, 셋째, 동해안을 환동해권 관광, 무역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한 운송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데에 있다. 이러한 강원도의 계획은 일본의 환일본해 운동, 중국의 두만강지역개발계획, 러시아의 대블라디보스톡계획, 북한의 나진-선봉 자유무역경제지구 개발계획 등과 맞물려 비교적 활발한 교류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강원도는 1994년 11월 8일에 속초에서 '환동해권 4개국 지사 성장회의'(중국 길림성, 일본 鳥取縣, 러시아 연해주, 한국 강원도)를 개최한 이후 환동해권 지방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적극적인 전략을 추진해왔다.

강원도는 보다 가시적인 성과를 도모하기 위해서 2002년 이후부터 보다 구체적이고 단계적으로 「제도적 환동해경제권」을 목표로 하는 「황금의 육각모형(The Golden Hexagon Model)」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서 「육각」은 그 동안 논의되어 오던 동북아지역에 있어서의 다각경제협력체제를 지역차원에서 발전시켜 환동해권지역의 6개국 지방정부 및 지역을 포함하는 지역간 다각경제협력체제를 의미한다. 또한 「황금」이란 표현은 환동해경제권이 아시아에서 가장 가능성 있는 경제협력

블록으로서 동해가 그 동안의 차가운 「냉전의 바다」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아시아의 지중해 (Asian Mediterranean Sea)」로 지향함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황금의 육각모형」에서의 「제도적 환동해경제권」은 환동해권 6 개국간 6 개의 협력주체에 의해 6 단계에 걸쳐 완성할 수 있다. 6 개의 협력주체는 각국 지방정부, 지역대학 및 지역연구소, 지역기업, 지역주민, 지역거점과 중앙정부를 의미하며, 6 단계 실천방안은 기본적으로는 실행하기 쉬우면서 범위가 좁은 사업으로부터 점차 실행하기가 까다롭고 범위가 넓은 사업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는 소위 點 - 線 - 海面 - 地面 - 立體의 단계로 추진된다.

V. 환동해권 공동번영을 위한 피스씨 비전 (Peace Sea Vision) 구상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 들어 동북아시아에서는 국가간 제도적 협력이 구체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동북아시아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한국, 일본, 중국 등 3 개국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러시아, 북한, 몽골 등은 제외되고 있다. 이는 동북아시아의 두개 축인 환황해권과 환동해권 중 환황해권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환동해권은 동북아시아의 자원의 보고인 러시아, 몽골, 중국의 동북 3 성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지역을 제외시킨다는 것은 진정한 동북아시아 경제권의 형성이 될 수 없고 경제적 효율성이 매우 미흡한 것이다. 아울러 이는 동북아시아의 불균형발전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매우 크다.

뿐만 아니라 각국의 입장에서 한국의 동해연안지역과 같이 그동안 낙후되었던 지역을 계속 소외시킨다는 점에서 국토 불균형발전을 심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첫째, 경쟁력있고 균형있는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을 위해서는 환황해권과 함께 환동해권의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 즉, 강원도가 위치한 동해 연안지역에 인천, 광양, 부산에 상응하는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고 이곳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다만, 강원도 지역은 여타 경제자유구역과 달리 지역적 특성에 맞도록 관광, 대북한교류, 극동러시아의 자원을 염두에 둔 방식으로 개발해야 한다. 이 후보지는 동해, 묵호 지역이나 속초지역이 유망하다. 동해안을 포함한 전국 4 곳에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동북아시아 경제중심국가 건설에 있어서 환황해권과 환동해권을 동시에 대응함으로써 경쟁력이 높아질뿐만 아니라 전국토를 L 자형이 아닌 U 자형으로 균형있게 개발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두 번째, 한국은 동해안 연안뿐만 아니라 환동해권역에서 전체 지방들간의 협력을 할 수 있는 지역간 협력체를 구성해야 한다. 예를 들어 유럽 전역이 EU로 통합되어 있는 유럽에는 각 지역마다 여러 나라의 지역을 연계하는 비전 (vision) 계획을 수립해서 이를 추진하고 있다. 예를 들어 북해 (North Sea)를 연하고 있는 각국의 지방들이 참가해서 NorSea Vision를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다. 동북아시아에서도 향후 한 - 일 - 중 간의 FTA가 형성되더라도 환동해권, 환황해권 각국의 지방권역을 연계하여 공동발전을 위한 하위협력 비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해야 한다. 이로써 중앙정부간의 상위협력과 상호 보완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환동해지역 각국의 모든 지방정부가 참여하여 소위 Peace Sea Vision 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Peace Sea Vision 은 환동해 연안지역의 균형된 공간구조의 형성을 통해 공동 번영을 이룩하고 경제공동체를 형성하고자 하는 비전계획이다. 해당지역은 동해를 중심으로 한 6 개국의 연안지역 (한국의 강원도 및 영남지방, 북한의 함경도 및 강원도지역, 중국의 동북 3 성, 일본의 일본해연안 14 개 道府縣, 러시아의 연해주, 하바로프스크주 및 사할린주, 몽골 중앙현 등) 을 모두 포함한다. Peace Sea Vision 은 환동해권 지역 거점도시 및 경제특구의 연계, 부존자원의 공동개발 및 이용, 교통인프라 구축, 통상의 증진, 공동투자 및 개발사업의 추진, 지방정부간 교류와협력의 확대, 지역주민 및 단체간 교류 및 협력의 활성화를 통해 환동해경제권 형성의 기틀을 다지는 데 그 목적을 두어야 한다.

아울러 각국 중앙정부는 이러한 계획들을 받아들여 동북아시아가 모든 지역이 참여하는 진정한 공동체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